성성스레 사는것"

서 뵌 큰스님

님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합회 총재)

…"늘 기쁨전하며 살고파"

견서는 심했다. 1954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계
로 답한 를받은스님은57년 비구계를 수지하
았다. 어 고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후 쌍계사
한 소설 주지,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후
일을 가 1984년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
구와 함 회의 회장을 맡으며 어린이포교를 이
학소리, 끌어왔으며 95년에는 불국토 대표이
틀 동 사를 맡아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부처
나 꼬부 님의 자비를 전하는 복지분야에서도
을 뼈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범어사 스님은 "환희지 보살처럼 사람들
보살계 에게 늘 기쁨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틀 결 원으로 정진하고 있다.

히 이어온 일과인 스님의 불(佛)자 쓰기는 스님의 또 다
수행방편이 되었다.
"어느 날, 반야심경 10만 번 쓰는 것을 발원해서 실천하
손병윤 변호사라는 분이 자신이 천 번째 쓴 반야심경이
면서 액자를 해서 가져왔더군요. 그것을 받는 순간, 굉
장히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나도 붓글씨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다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스님은 그때부터 붓, 먹, 벼루를 사고 독학으로 붓글씨
를 시작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교본으로
혼자서 연습해서 하루 불(佛)자 열 장 쓰는 것을 일과로 삼
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배우지도 못한 붓을 쥐고 보니
마음에 갈등이 심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아니지,
그래도 결심이 중요하니 끝까지 실천해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스님
은 글씨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매일 열 장씩 쓸 때, 학생회 법우들이 학교에서 돌아오
면 먹을 갈아주곤 했어요. 내가 불(佛)자 열 장 쓰는 것으로
나와 씨름할 때 그 아이들은 먹을 갈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살펴 나가는 공부가 된 셈이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 희망없어
부처님 향한 신심 샘물솟듯 하길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붓으로 씻어내며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글씨를 쓰고 또 쓰는 사이 어느덧 만장
을 넘어섰다. 만장을 넘어서자 스님만의 독특한 불(佛)자
의 틀이 생겨났고 3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던 내면의 갈
등도 사그라들었다. 스님은 마음의 갈등을 안고 섰던 글을
말끔히 태워 없애고 만장 째 쓴 불(佛)자는 서로 달라고 조
르는 학생회 중에서 추첨을 해서 어느 여학생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때부터 스님은 인연 닿은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
을 전하는 마음으로 직접 쓴 글씨를 선물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복작거릴 때 붓으로 씻어내면 그 이상 가는 것
이 없다"는 스님은 영주암 대웅전 편액을 썼을 때의 얘기
를 들려주신다. '법을 새워 '대웅전' 이라는 글자를 쓰고
또 쓰는데, 먹을 갈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간지 오래고
내가 쓴 '대웅전' 이라는 글이 방안에 가득 쌓이도록 밤새



◇ '도량을 비질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고 당부하는 정관스님.

것만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온 국민과 더불어 잘 사는 길을
고민하고 대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내면의 지혜를 갖추도록 이끌어야 하는 스
승으로 우뚝 서야 할 수행자로서 스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음을 절감한다. 스승이셨던 동산 스님이 몸소 보여주었
던 수행정신과 대중 교화의 자비심을 닮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동산 스님과 함께 지낸 제자라면 누구나 스님이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도량을 비질했던 일화를 떠올
린다. 정관 스님은 스승의 하루도 빠짐 없었던 비질을 인
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지혜의 실천이며 정성스럽게 사
는 인간의 길임을 늘 새기곤 한다.

"우리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3시 15분이면 어
김없이 일어나셔서 여행가는 사람처럼 즐겁게 법당에 가
시곤 했어요. 그 발걸음이 어찌나 설레고 즐거움으로 가득
한지 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풍경이 떠오를 정도였
죠. 스님께서 기도하거나 법당에 참배하는 것을 보면, 하
나라도 더 있으면 더 받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
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공경심 가득한 마음으로 조왕단을
시작으로 선방, 관음전, 용왕전, 비로전, 탑, 지장전, 산신각,
나한전, 팔상전 등 열 군데가 없는 전각을 모두 참배하셨
는데 늘 똑 같은 시간에 하루 2번씩 정확하게 참배하셨으
니 지금은 흉내조차 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각의 참배처럼 열반 당일까지도 빠지지 않은 것이 6
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비질이었다. "도량이 청정
해야 선신이 옹호한다"는 말씀과 함께 몸소 보여주신 스승
의 가풍을 잇기 위해 정관 스님 또한 범어사 주지로 있을
때 단 하루도 비질을 멈추지 않았다.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
이면 잠겨 있는 법당 문을 열고 반드시 인사를 드렸을 정도
였던 동산 스님을 보며 화엄경을 수 백 번 배운 것보다 귀
하고 생생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내 장기는
마당 쓰는 것 뿐이야"라고 했던 스님의 목청이 생생하다.
정관 스님은 "부처님을 향한 신심 하나는 샘에서 물 솟듯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스님의 일
상 속에 되살리는 노력을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금강스님



몇 해 전 사중불사에 손수 굴삭기(포크레인) 운전을 한다는 스님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스님들이 울력으로 직접 집을 짓는 것은 더러 보고 들었지만 중장비 운전까지 한다는 말은 처음 접하였기에 신기한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잘 듣다보니 그 신기한 스님이 바로 금강스님이었다.

10여 년 전 강원에서 공부할 때 '전국승가학인연합'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우리는 해인사 강원의 대표로, 중앙승가대학 대표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금강스님은 둥근 얼굴에 동그란 안경을 낀, 깔끔한 외모에 얼굴에는 항상 맑은 웃음을 띄고 있어서 첫 만남에도 오랜 지기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회의를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논리가 정연하면서도 인간적이며 여유로운 융통성마저 가져서 '젊은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다듬어져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더불어 부러움을 느낄 정도였다.

금강스님이 살고 있던 해남 미황사는 유서깊은 고찰이지만, 우리나라의 땅 끝, 해남이라는 외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신도의 시주가 넉넉치 못했을 테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불사를 하던 은사스님께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 굴삭기 운전을 하게 된 이유인 듯 했다.

시간이 지난 뒤 우연히 조계사 인근에서 금강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는 나라에 경제위기가 와서 국제금융IMF의 지원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사회에는 실직자가 넘쳐나고 노숙자 문제가 점점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던 상황이었다. 모두가 앞날을 예측 못하는 혼미한 국가의 경제상황은 불교계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지만, 근검절약이 몸에 밴 대부분의 절과 스님들은 조금 더 아끼고 살자는 소극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금강스님은 백양사에서 수련법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실직자를 위한 수련법회'를 위해 자료도 구하고 종단의 지원을 받아보려고 왔던 길이었다. 미황사를 떠난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 데도 금강스님의 얼굴엔 굴삭기 운전할 때 햇볕에 타서 점처럼 생긴 검은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맑고 기운찬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당시 타 종교나 사회단체에서의 실직자와 노숙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에 비해 한없이 빈약하기만 하던 우리 불교계의 관심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는데, 금강스님의 실직자를 위한 수련회는 비록 그 결실이 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 바로 뜨고, 깨어있는 스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었다.

2년전 조계종 포교원의 소임을 맡아 왔을 때, 합께 일할 스님자리가 비어있어 추천이 필요했다. 바로 금강스님을 생각하고 전화를 했지만 자신은 아직 산사에서 더 기도하고 정진하고 싶다고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해 여름 신문에서 미황사에서 어린이 한문학당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물론 금강스님이 도맡아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었다. "그 벽지 외딴 곳에서 어떻게 어린이 한문학당을 하겠다고…" 걱정도 되고 소식도 전할 겸 전화를 넣었더니 무척 밝고 쾌활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너무 잘 돼서 걱정"이라며 자신이 넘쳤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여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땅끝이라는 지역적 취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켜 인근 학생들뿐 아니라 멀리 외지에서도 문의가 쇄도한단다. "어차피 그렇게 일을 할 거면 서울에 와서 좀 하지 그랬냐"는 타박에 껄껄 웃으며 자신은 서울체질이 아니란다.

지난 가을 포교원 소임을 그만두었다가, 올해

손수 굴삭기운전 불사전념
세상을 보는 눈 항상 열려있어

한일 월드컵 게임을 맞아 '템플스테이' 일을 맡아 다시 서울로 왔을 때, 템플스테이 신청사찰 명단에서 미황사를 찾을 수 있었다. 유수한 본사들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외국인을 맞아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은 지금껏 없던 일이라 말사인 미황사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금강스님은 어느 절보다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사 정부나 종단의 지원이 없어도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미황사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선발되게 했다.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동안 미황사는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중요한 사찰의 하나가 되었다. 땅끝이라는 매력과 더불어 금강스님이란 믿음직한 스님이 있는 까닭이었다.

가을이 저물어 갈 무렵, 금강스님과의 통화에서 미황사에 올 여름동안 사람들이 1만명은 다녀갔다고 들었다. 물론 단순한 관광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건 절을 찾아 무언가 체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일 것이다.

금강스님은 같이 먹고 자면서 정을 쌓고 인연을 맺은 적은 없지만 정말 뜻이 통하는 도반이다. 그리고 절이나 스님을 소개해 달라거나 불교의 인연을 구하는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스님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대구 팔공산 1인1지장 만불보탑 성취 4000일 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장보살님의 성취공덕이 늘 함께 하길 두손모아 기원 올립니다.
불기 2540년(1996년) 대구 두산동에서 맨손으로 몸소 불단을 만들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기도수행, 포교복지 원력으로 6년 이제 팔공산 앞 갓바위 입구에 지장보살님의 새 터전 작은도량을 마련하여 1인1지장 만불보탑 불사와 한가정 한평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지장대법사 표허 큰스님을 모시고 만일기도 결사의 원력으로 4000일 기도를 입재발원 올립니다.
지장경 전독 제4차 1000일기도와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새원력과 새날을 기다리지 않고 성취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두눈과 두손의 무한 가피력으로 선근공덕, 성취공덕, 회향공덕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길 두손모아 지장보살님전에 축원 올립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 입 재 : 불기2546년 12월 8일(음력 11월 5일) 일요일 오전10시
㉮ 1일1지장 인연공덕 동참자 1인, 한가정 한평불사 인연공덕 동참자 5인가족 동참일로부터 1000일축원
㉮ 동참금 : 1인 1지장 (원불, 조상영가, 태아영가 30만원
한가정 한평불사 100만원
인연따라, 형편따라 선원장스님과 상담후 분납됩니다.
㉮ 1인1지장에는 인연공덕 동참자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한가정 한평불사 동참자는 공덕비에 5인가족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100일마다 천도재 올립니다.

※ 대구은행 지장선우(055-05-422870-001)

불기2546년 11월 좋은날 조계종 범어사 대구포교당
지장선원장 지 공 손모음
지장선원 ☎ 053)744-0150~1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대학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2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1주, 2주, 1개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체육단체, 기업체 위탁연수)
▶ 수련내용 :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 동 참 금 : 학생(1일-2만원) 일반(1일-3만원, 1개월-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수련비 입금계좌 :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 준 비 물 :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장갑
▶ 시 설 : 선무도대학 본관과 요사(숙소)는 신축건물로써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석굴사원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사찰 전통문화와 대자연속에서 불교와 선무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스트레스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피로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오후 수련(선무도 학생)
5시	좌 선(명상과 선호흡수련)	15시	전통문화 강습(무용, 다도)
6시	조깅, 등산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7시	아침공양(발우 공양)	18시	저녁공양
8시	불교강의(초발심, 부모은중경)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9시	오전수련 (선무도의 정적인 기공수련과 선체조)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선무도)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21시	점호 및 취침
12시	점심공양		

-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의 문무대왕수중릉 성지순례와 계곡의 얼음 물속에서냉수마찰 수련도 합니다.
-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을 정화하고 한문공부도 시킵니다.
- 임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 규칙을 어길 경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 지도진: 스님, 사범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전공자 등), 다도 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대학원)
- 홈페이지 www.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증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장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 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